

고전음악의 이해 과제

2016025041 소프트웨어전공 하태성

1.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 1악장을 감상해보고, 이 곡이 사랑이라는 주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써 오세요.

- 환상교향곡의 내용은 한 여인을 만나 단 한번에 사랑에 빠진 음악가의 이야기를 담고있다. 1악장(꿈.정열 : Largo Allegro agitato e appassionato assai)은 사랑에 대한 열정을, 2악장(무도회 : Valse Allegro non troppo)은 무도회와 같은 곳에서도 한 사람만 생각하는 마음을, 3악장(들의 풍경 : Adagio)은 목가적인 곳에 있어서 편안함을 느끼지만 여전히 사랑에의 불안함을, 4악장(단두대로의 행진 : Allegro non troppo)은 사랑을 고백했으나 거절당하고 아편으로 음독 자살하는 상황을, 5악장(마녀의 밤. 축제날 밤의 꿈 : Largetto-Allegro)은 죽지는 않았으나 꿈속에서 마녀의 집회에 가서 있었던 기괴한 일들을 담고있다.
- 이 곡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실제 모델은 베를리오즈 자신이다. 그는 1827년 셰익스피어의 연극 햄릿을 관람하다 오페라 아역을 맡은 여배우 해리엇 스미드슨을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져버린다. 그는 2개월 반만에 이 곡을 완성하였고 작곡가로써 성공해 결국 스미드슨과 결혼을 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못하고 별거에 들어갔고, 그녀가 죽은 후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져 재혼을 한다. 자신의 사랑을 소재로 한 이 교향곡은 표제음악이라는 장르에 음악적 모델이 되었다. '어느 예술가의 생애'라는 부제가 달린 이 곡은 악보 앞에 "사랑에 미치고, 인생에 실증을 느낀 젊은 예술가가 마약을 먹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독약의 양이 적어서 죽지는 못하고 고통스러운 잠 속에서 이상한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나타나게 됩니다." 라는 표제가 명시 되어있다고한다.

2. 오페라의 아리아(Aria)와 레치타티보(recitativo)에 대해 조사해 오세요.

- 아리아 : 아리아는 오페라 ·칸타타 ·오라토리오 등에서 나오는 선율적인 독창부분이다. 레치타티보와 반대로, 아리아는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으로서 모든 음악적인 표현수단을 구사하고 가수의 기량을 나타내는 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17세기 초에는 시절 아리아(Aria Strofica), 유절 가곡 형태(a, a, a)로 몇 개의 연으로 되어있는 시에 동일한 음악이 반복되는 것, 가 있었다. 18세기에는 주로 기교적인 아리아가 성립되었는데, 형식적으로는 다 카포 아리아(da capo aria)가 대표적이다. 다 카포 아리아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옛 형식에 속하는 것으로서, 전체적 구조를 A, B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A부분의 주제를 중점적으로 작곡하고, B부분은 딸림조나 그 밖의 근친조로 매우 대조적인 성격의 것을 둔 다음, A'부분으로 돌아가 같은 선율과 가사를 다시한번 반복하여 끝나는 A-B-A'의 복합 3부분 형식으로 된 아리아이다. 또한 A' 부분은 연주가의 즉흥적인 변주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또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비 파르테 아리아(Aria bi-parte)가 유행했는데 이 것은 a, b, b' 형식으로 구성되어 a부분은 부드럽고, 선율적이고, 템포는 느리며 평이하고 b부분은 리드미컬하고, 빠른 템포를 가지며 비르투오조적이다. 이 후 19세기까지도 이탈리아 오페라의 작곡가들도 아리아로써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 주는 일에 주력했는데, 바그너의 혁명적인 악극 이후 무소르그스키나 드뷔시 등의 근대오페라에서는 드라마가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데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기교적이며 장식적인 아리아는 쇠퇴하였다.
- 레치타티보 : 오페라/오라토리오/칸타타 등에 쓰이는 창법으로 선율을 아름답게 부르는 아리아와는 반대로 대사내용에 중점을 두고 스토리 전개를 설명한다. 극의 줄거리나 행동을 설명하는 음악적인 낭독, 음정이 있는 대사이다. 극의 사실들을 이야기하거나 액션을 전개, 자연스러운 말의 억양을 모방하고 극적인 상황 변화, 기본적인 분위기를 설명한다. 레치타티보의 종류로는 Recitativo Secco(레치타티보 세코), Recitativo Accompagnato(레치타티보 아콤파냐토), Recitativo Parlato가 있다. 레치타티보 세코는 첼발로나 기타, 첼로의 반주에 의한 단순한 화음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레치타티보이다. 17세기~18세기 사이에 많이 활용되었으며 바로크, 모차르트, 로시니까지 활용하였다. 단순한 화음과 중간 정도의 음역으로 이루어졌으며, 반복되거나 모방되어진 음정 라인을 가지고있다. 레치타티보 아콤파냐토는 오케스트라 반주에 의한 레치타티보이며 주인공의 드라마틱한 상황에서 특별한 아리아 앞에 활용되었다. 그러다 레치타티보 세코가 없어지고 모든 상황에 레치타티보 아콤파냐토가 활용되었으며 글록의 오페라 개혁에 의해 많이 활용되기 시작했다. 레치타티보 파를라토는 음악이 없이 대사로만 연기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